

한국불교학 세계화... 미래지향 '통섭' 교육

④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동국대의 역사는 한국 불교학의 역사이자, 1906년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의 개교는 근대불교학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명진학교가 불교사범학교, 중앙학림, 해화전문, 동국대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동국대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동국대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총망라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06년 5월 설립됐다.

당시 한국 불교계는 일본 사원건립을 이유로 한국시찰에 대한 철폐와 위협이 계속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신불교운동이 일어났다. 신불교운동은 흥월초·이보담 스님 등에 의해 명진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총대 전근대적 강원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불교계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해 설립된 명진학교는 근대적 교육을 위한 외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전통강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리 수학 자연 등 다양한 신학문을 수용한 명진학교의 교육과정은 산중불교에 머물러 있던 한국불교를 개혁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됐다. 또 명진학교 구성원들이 주축이 돼 조직한 광복회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중앙불교전문학교 시절 자치활동을 보장 받은 학생들은 불교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답사를 계획, 실시했다. 그들은 불교 중심의 각종 학술공개강연회를 개최했고 <일광(一光)>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학생들도 나선 불교 대중화는 명진학교와 불교사범학교 출신의 우수한 교수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방이후 동국대 초대 총장을 역임했던 권상로 박사는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불교학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 불교학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권상로 박사가 1939년 일본인 교수와 함께 <이조실록 불교조준> 19권을 출간한 것은 불교학 연구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조실록 불교조준>은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불교관계 기록을 뽑아 모은 것으로 방대한 분량의 조선왕조실록을 일일이 훑어보지 않아도 손쉽게 필요한 사항을 찾을 수가 있어 오늘날까지도 불교연구자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한 포광 김영수 스님은 화엄 유식 불교논리학 불교사학 고대사 및 고전문학 등 다양한 불교관련 학문을 섭렵하며 한국 근현대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937년과 1938년 잇따라 <진단학보>에 발표한 '오교양종에 대하여' '조선선종에 대하여'라는 논문은 거시적 시각에서 한국불교사를 정리한 것으로 신라시대에 오교양종(五教兩宗)이 성립됐다는 것과 한국 선종이 중국의 아류가 아닌 독자성을 갖고 발전해온 것임을 주장한 것으로 한국불교사 정리에 큰 틀을 제시했다.

1940년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불교학 연구와 함께 해화전문학교가 1946년 동국대학,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다시 활발히 진행됐다. 우선 외형적으로 석사과정이 신설돼 학문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으며 이

후 박사과정을 신설, 동국대가 명실상부한 현대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1960년대 들어 동국대는 불교학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불교학 연구 분야는 학자들의 개별적 연구보다 연구소 중심의 연구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공통된 주제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키는 물론, 연구의 한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1962년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을 통해 동국대는 불교학 중심의 확고한 위상을 세우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와 선학 및 불교미술·문화재 연구 등을 통해 향후 불교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국불교사상사정립이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

후 박사과정을 신설, 동국대가 명실상부한 현대불교학 연구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1960년대 들어 동국대는 불교학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불교학 연구 분야는 학자들의 개별적 연구보다 연구소 중심의 연구 활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공통된 주제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성과를 배가시키는 물론, 연구의 한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1962년 불교문화연구원 설립을 통해 동국대는 불교학 중심의 확고한 위상을 세우게 된다.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와 선학 및 불교미술·문화재 연구 등을 통해 향후 불교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원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국불교사상사정립이었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사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

특히,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2011년 처음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회의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올해 3월 29일에는 성철 스님 탄신100주년을 기념해 배려불교문화재단 성철선사상연구소와 공동학술회의를 여는 등 체계적 중흥의 학술적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합연구소는 세계적인 불교학자를 초청해 간화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1960~1970년대 <불서전관목록> <한국불교전승문헌총록> 등 문헌과 사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 <한국화엄사상연구> <한국천태사상연구> <한국선사상연구> <한국정토사상연구> <한국밀교사상연구> 등 연구성과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한국불교사상사의 체계를 마련해 나갔다.

불교문화재 발굴과 수집, 보존을 위해 불교박물관을 개관한 동국대는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 분야 개척에도 힘썼다. 황수영 박사를 중심으로 1964년 진행된 부여지방 소재 백제 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당시 폐사지 발굴이 전무하던 당시 학계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동국대가 배출한 불교학자들은 학회를 결성해 학술적 담론을 이어 나갔다. 이들은 학회 중심의 활동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불교관련 학회가 전무하던 1973년 국내 불교학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한국 불교학의 집대성을 위해 창립된 한국불교학회를 비롯, 1988년 인도철학회, 1997년 국제원효학회, 2000년 한국선학회 등이 동국대를 중심으로 설립된 불교학술단체들이다.

동국대는 2009년 불교학 중심 기관이던 불교문화연구원과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콘텐츠연구소를 총괄·감독하는 불교학술원을 설립해 불교학 연구의 변혁을 꾀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조계종 역사와 전통사상 수행에 대한 학문적 토대 마련을 위한 종합연구소 설립하고 초대 소장에 종호 스님을 임명했다.

불교학술원은 설립 초기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의 초대 불교학술원장 임명의 호재를 살리지 못해 표류하는 듯 했으나, 2011년 4월 제2대 원장 인환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임명 이후 괄목할 만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인환 스님 원장 취임 후 21세기 대장경 불사라 칭해지는 200억원 규모의 '불교기독교 융합 중심 연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정부로부터 수주했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등 한국불교문헌 집대성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21세기 통합대장경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동국대역경원이 지금까지 담당해왔던 대장경 한글화를 뛰어넘는 것이다. 불교학술원은 한국불교 관련 원전 집대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1차 사업, 이를 디지털화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2차 사업까지 15년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불교학술원은 지난해 HK사업도 수주했다. 이외에도 간화선 국제학술회 개최, 한국불교학 진흥 연구인력 양성, 한국불교학 진흥기금 모연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2011년 처음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회의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또, 올해 3월 29일에는 성철 스님 탄신100주년을 기념해 배려불교문화재단 성철선사상연구소와 공동학술회의를 여는 등 체계적 중흥의 학술적 선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종합연구소는 세계적인 불교학자를 초청해 간화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 불교학의 산실인 동국대 교정 모습. 동국대는 제2간학 운동을 통해 세계속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교학 등 인문학 명문 동국대 융복합 토대 이공계도 혁신 물결 IT NT BT분야 특성화 대폭 투자 일산 바이오메디캡 개원 등도

동국대는 최근 산학협력과 학부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융복합 학문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국대는 2월 28일 IT 관련학과 연구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사를 벌여온 신공학관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완공된 신공학관과 지난해 바이오메디캡연구소 약학관, 산학협력관, 종합강의동 준공으로 IT(정보통신)교육분야와 NT(나노과학)교육분야의 연구 인프라가 3배가량 늘어났다. 교수들의 연구실은 물론, 강의실, 세미나실, 실험실 등이 대폭 확충된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연 신공학관은 연면적 2만 3075㎡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IT와 전자전기, 반도체 관련 학과의 연구실과 실험실로 이용될 예정이다. 교수들은 물론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용 연구공간도 배정됐다. 동국대는 신공학관 완공에 이어 기존의 공대 건물도 리모델링을 시행해 첨단 연구 인프라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동국대의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불교학과 인문학 교육 전통에 융합형 이공계 교육을 더해 이공계와 인문학을 동시에 육성하는 전략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최근 이뤄진 일련의 연구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이러한 융복합 교육에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연구시설이 3배 이상 늘어났다. 인문학 중심 대학에 첨단 융복합 이공계 교육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융복합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방안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동국대는 이러한 학부교육 선진

“통섭 교육 통해 학부교육 선진화 진력”

김희옥 총장



“불교학을 기틀의 건학이념을 튼튼히 다지고 이를 통해 인문학·이공계간 통섭적 인재 육성에 총력을 다하

취임 2년째를 맞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급변하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학도 효과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며 “미래지향적 학문구조개편의 보완책을 마련해 융·복합 신선헌과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적성을 파악하고 역량을 개발해 우수인재로 배출시키

기 위한 ‘인재동국 프로젝트’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동국 프로젝트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학생을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김희옥 총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 연구, 인문과 공학 등 융합의 교육을 만들 계획이다.

김희옥 총장은 “2011년 대대적인 캠퍼스 확장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2간학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 발을 순조롭게 내딛었다”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문학의 명문 동국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교육의 명문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과 같은 생각·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건학이념을 통해 구현하는 것이 동국대”라며 “교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 모델을 i-LOTUS 모델이라 명명하고 4C 전략-Convergence(융복합), Core Competency(핵심역량 신장교육), Culture University(새로운 대학문화 조성), virtuous Circle system(순순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

동국대가 이처럼 융복합을 기반으로 한 학부교육 선진화와 대대적인 연구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연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등교육 보편화와 분과학문 중심의 파편화된 교육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문제, 고도화되는 지식정보와 사회속에서 탄탄한 인성에 기초한 통섭의 교양을 갖춘 인재양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동국대는 이런 대학교육 패러다임 혁신

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을 선도하는 융복합 학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산학협력 분야에서 서서히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인문학과 문화예술, 영화 등의 기존 학문구조에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또, 특허와 학교기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첨단형 융복합 이공계 교육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친 동국대의 야심찬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동성 기자** cestana@hyunbul.com

진각종립 위태는 취재에 불응, 이번 기획 시리즈에서 아쉽게 빠졌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복강경 수술 모습. 양·한방 협진을 자랑하는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이념을 근간으로 2005년 개원한 환자 중심의 첨단병원이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KFA, KFTI, EMI, LIS, ISO 9001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진분 ※오심증,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간담메트, 오심전조계, 요추배개동 자매제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